민족문화연구 제99호 편집자의 말

『민족문화연구』 제99호에는 기획특집 논문 4편, 일반 논문 14편을 포함해 총 18편의 논문과 해제 1편이 수록되었다. 일반 원고로 수록된 논문은 국어학 1편, 현대문학 1편, 한문학 2편, 역사학 3편, 철학 3편, 미술사 3편, 문화콘텐츠 분야 1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호 기획특집 주제는 "한국 근대 간행물 영문사전"으로, 이에 대해서는 '특집의 말'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일반 논문과 해제에 대해서만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정성권은 세계 최대의 철불로 알려져 있는 하남 하사창동 천왕사지 철불 좌상의 조성배경을 새롭게 검토하고 있다. 하사창동 철불은 1911년 천왕사지에서 반출되어 그동안 고려 태조 왕건시기에 조성된 철불로 알려져 왔다. 이 글에서 저자는 태조 왕건시기에 조성된 석불 및 석탑 등과 천왕사지 철불을 비교 분석하여 이러한 견해를 비판한 후, 천왕사지와 인접한 동사지의 발굴성과를 토대로 철불 좌상이 혜종과 그를 후원하였던 왕규가 통일신라의 정통성을 계승하기 위해 만든 불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서근식은 오징(吳澄)의 『역찬언(易纂言)』과 권근(權近)의 『입학도설(入學圖說)』·『주역천견록(周易淺見錄)』을 비교 검토하여 원대의 유학자인 오징의 역학 사상이 권근의 역학에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 고찰한다. 저자는 권근의 『주역천견록』에 오징의 견해와 해석을 따른 부분이 많이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권근이 오징의 상(象)에 대한 해석 및 『주역』 경문(經文) 글자를 고친 점 등을 비판하거나 해석상에서 이단(異端)에 빠진 점을 경계하는 등 자신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차충환은 일본 국립공문서관 내각문고에 소장된 『매월당집』의 문헌적 성격과 위상을 고찰하고 있다. 저자는 인장을 통해 내각문고본 『매월당집』이 18세기 말·19세기 초에 일본에 귀속되었을 것으로 추정한 후, 을해자본 및 경진자본 『매월당집』과 비교하며 세 판본간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또한 다른 본에는 없는 비구니의 생애를 기록한 글 및 『임천가화』가 별집으로 수록되어 있는 등 김시습을 좀 더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적 가치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박종천은 송시열 예학의 연원과 복합성을 밝힘으로써 남인 및 소론 예학과 대립된 측면만 강조되었던 송시열 예학 사상에 대한 단선적 이해를 극복하고자 한다. 저자는 송시열의 예학이 이이의 현실주의적 예론과 송익필의 원칙주의적 예론의 긴장관계 속에서 구성되었음을 지적하면서 그의 예학이 친친(親親)의 사적 인정을 자연스럽게 표출하도록 배려하는 현실주의적 예론과 의리명분론에 입각해 존존(尊尊)의 공적의리를 실현하려는 원칙주의적 예론의 복합적 성격을 띠며 현실의 예법논쟁에 작동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김선희는 이가환(李家煥)의 서학 연구 및 그가 신유옥사로 희생되는 역사·정치적 맥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천문책」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온 기존 연구의 단선적 측면을 극복하고, 『이재난고』의 기록을 토대로 이가환 서학 수용의 지적네트워크 및 서학 연구 수준과 범위 등을 복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또한, 천문학과 수학에 집중했던 이가환의 서학 연구가 어째서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며 천주교의 수괴(首魁)라는 죄명으로 단죄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역사적 맥락 속에서 되짚어 보고 있다.

박철상은 최근 『북학의』의 원본으로 공개된 수원화성박물관 소장 『북학의(北學議)』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그 원본성을 증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저자는 『북학의』의 편찬 과정 및 여러 이본들의 서체와 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박지원이 편찬한 『삼한총서』에 수록된 『북학의』가 가장 앞선 시기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음에 착안하여 이와의 비교를 통해 수원화성박물관 소장본에 실린 박지원의 「북학의서」가 그의 친필이며, 수원화성박물관 소장 『북학의』가 박제가 친필의 원본임을 고증하고 있다.

김취정·심명주는 유불도관련 민화를 중심으로 조선후기 민간에서 발생한 새로운 생활 신앙의 특징 및 염원을 살펴보고 있다. 저자는 명대의 내단서인 『성명규지』 수록 삽화 및 이인문의 「유불선도」와 민화 「삼불제석도」, 「만법통일도」 등을 검토하여 이들이 공히 유·불·도 합일의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지적한 후, 사대부 계층에서 시작된 종교적 경계의식의 해체가 민간차원에서 생활 신앙의 염원으로 확산되고, 이러한 경향이 유불도 합일의 동학과 증산교 탄생의 토양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

정혜정은 근대 초기 동학 이론가인 이돈화의 '인내천(人乃天)' 개념과 '지기론(至氣論)'을 중심으로, 그가 서구 신관과 진화론 및 근대 실재론을 수용하여 동학사상을 설명하면서도 서구사상과 동학을 어떻게 차별화시켰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돈화는 동학의 신관을 '인내천 신(神)', 즉 '범신론적 일신론'으로 명명하였고, 서구 진화론과 근대 실재론을 활용하여 '무위이화(無爲而化)의 진화론'과 '지기(至氣)실재론'을 주장했다. 저자는 이를 서구철학의 한계를 넘어선 동학 '한울철학의 심화'이자 동학의 불교적 측면을 살려 나간 '지기실재론의 체계화'로 평가하고 있다.

국성하는 1950-60년대 미국공보원 한국지부의 전시 활동과 그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 미국공보원 한국지부는 미국의 정치사상 및 문화를 한국인들에게 전파하기 위해 서울과 부산의 미국공보원에서 많은 전시회를 열었다. 저자는 미국 문화 및 반공・경제・과학을 주제로 한 1950-60년대 미국공보원의 전시활동을 전시 주제와 함께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이와 같은 전시가 냉전체제하의 한국인들이 미국의 문화・정치・과학 등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게 하는 도구로 기능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오은영은 1960년대 전후에 발행된 총련 기관지를 중심으로 재일조선인 미술가의 활동을 고찰하고 있다. 총련 기관지는 일본에서 유일하게 한글로 발행된 신문으로 재일조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다. 저자는 기관지에 실린 삽화와 그림, 글 등을 통해 재일조선인 미술가의 창작 활동은 물론, 북한과 재일조선인 미술가의 관계, 일본인 미술가와 재일조선인 미술가의 교류, 재일조선인 미술가와 문학가의 작품 활동에 나타난 차이점 등을 다각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김진규는 고미카와 준페이의 『인간의 조건』 및 뚜르게네프의 『루진』 등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운사(韓雲史)의 '아로운 삼부작'을 검토하고 있다. 아로운 삼부작이란 일제시대 조선 청년의 일본군 징병체험을 주인공 아로운(阿魯雲)을 통해 극화한 『현해탄은 알고 있다』・『현해탄은 말이 없다』・『승자와 패자』를 가리킨다. 저자는 『인간의 조건』과 '아로운 삼부작'에 강조되는 휴머니즘이 군대 안에서의 부조리에 저항하고는 있지만,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구조적

사유와 비판을 결여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루진과 아로운을 행동보다는 이상과 관념을 추구하는 '구름(雲)'과 같은 인물로 평가하면서 아로운이 표상하고 있는 외로움의 의미를 세 가지 차원에서 밝히고 있다.

허은은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의 선전영화 상영과 문화냉전의 귀결에 대해서 고찰하고 있다. 냉전시대 진영의 형성 과정은 적과 동지를 만들기 위한 선전과 심리전을 동반했는데, 베트남전쟁에서 한국군은 대민심리전을 위해 영화를 주요한 선전 매체로 활용했다. 한국군은 국립영화제작소로부터 영화를 지원받아 베트남지역 주민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모범적인 발전을 달성하는 국가상을 선전했다. 저자는 한국군이 이처럼 능동적으로 문화냉전을 벌였던 주체이자 '국익'을 추구하며 문화냉전의 성격을 변화시킨 주체로서 남베트남 전장에 참여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송인성은 현대국어에서 사용되는 호출어의 종류 및 양상을 검토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현대국어 호출어의 종류는 '야', '이보-'류, '여보-'류, '잠깐(만요)', '저기요', '어이', '계세요'류, '실례합니다', '이리 오너라' 등이다. 저자는 이러한 호출어들이 어떤 담화 및 발화 상황에서 사용되는지, 그리고 각각의 호출어들의 등장 시기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다.

구자준은 네이버 별점 하위권 웹툰 10편의 베스트 댓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웹툰 독자가 형성하는 작가·서사·플랫폼에 관한 다양한 표현과 인식을 검토하고 있다. 저자는 별점 하위권 웹툰에서 작품에 대한 독자들의 적극적 의견 개진이 보다 활발하며, 게시판을 통해 독자들이 비평적 공론을 형성하여 작품에 개입하려는 시도가 반복해서 나타난다고 진단하면서 별점 하위권 웹툰 댓글에 드러난 독자의 작품 비평 기준 및 서사 분석 방법, 작가와 플랫폼에 대한 기대를 점검한 후 그 의미를 밝히고 있다.

김형준은 해외한국학자료 해제에서 동양문고에 소장된 『비소기(悲笑記)』를 학계에 처음 소개하고 있다. 동양문고본 『비소기』는 2권 2책 중 둘째 권만이 남아있는 낙질본이지만, 유일본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고, 궁체로 쓰여 있어 왕실 및 궁궐 주변의 사람들이 향유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가정 내 처첩간 갈등을 다룬 둘째 권의 내용을 통해 『비소기』가 가문소설 유형의

작품임을 알 수 있다. 18세기 이후 가문소설이 성리학적 이념에 따른 교조적인 성격을 띠는 것과 달리, 『비소기』는 등장 인물들의 개성적 모습과 우리 소설에서 보기 어려운 새로운 화소들을 포함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민족문화연구』 제99호에는 국어국문학, 역사학, 철학, 미술사, 문화콘텐츠 등 각 분야에서 새 자료를 발굴하거나 새로운 관점과 방법으로 기존 연구와 다른 참신한 의견을 개진한 성과들이 눈에 띈다. 한국학 종합 학술지를 지향하는 『민족문화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의 관점으로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고 토론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의 활발한 소통공간이 되길 희망한다. 이에 공감하는 많은 연구자들의 투고를 기대한다.

『민족문화연구』 편집위원회